

제22대 국회의원 선거

# 작은도서관 정책 제안



전국 작은도서관의 개수는 약 7,500개(2024.1.22. 기준)다. 전세계에서 유일한 형태인 대한민국의 작은도서관은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거리에서 도서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



## 작은도서관은

1. **도서관들의 실험실** 역할을 하고 있다.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많은 콘텐츠들이 작은도서관에서 이미 먼저 실험한 경우가 많다.
2. **아웃리치 서비스와 독자개발**에서도 지역을 거점으로 소외되거나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서관 서비스와 자원을 제공해왔다.
3. **미시(微視) 커뮤니티의 중심 역할**을 하고 있다. 좋은 장서의 수집과 서비스 제공은 좋은 커뮤니티를 만드는데 사용하기 위한 기초적인 내용이다. 작은도서관은 초기부터 커뮤니티 도서관을 지향하고 활발히 지역 활동가를 양성해 왔다.
4. **교통약자의 유일한 도서관**이다.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, 노인이 도보로, 유아차나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생활권에 있는 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이다.

## (사)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는 제 22대 국회에 제안한다.



**첫째, 작은도서관 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작은도서관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.**

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은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었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사장되었다. 작은도서관 현실에 맞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한다.



**둘째, 이미 정부에서 공공성을 부여한 작은도서관의 공간, 전담인력, 장서, 운영비를 공공예산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한다.**

작은도서관 인력 지원을 위해 정부는 순회사서 사업을 운영중이다. 매년 단기 채용된 사서가 2~3개의 작은도서관을 순회하며 서비스를 지원하는 순회사서는 작은도서관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 지원이다. 작은도서관은 활동가 기반으로 조성되고 운영되어져 왔다. 이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전담 인력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. 작은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하는 기본적인 예산지원을 요구한다.



**셋째, 삭감된 독서문화 및 도서관 예산에 대한 정상화를 요구한다.**

독서문화 및 도서관에 관한 예산 삭감은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 접근에 대한 권리를 무시한 처사다. 독서문화와 도서관 예산의 정상화를 통하여 국민의 독서문화 증진을 이끌어내야 한다.

## (사)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는

전국의 작은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의 운영 지원 및 컨설팅,  
협력과 교류를 목적으로 작은도서관 정책연구, 공공도서관  
어린이 서비스 연구와 더불어 어린이 책 연구,  
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 연구, 작은도서관 기본장서 연구,  
도서관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, 도서관 수탁 운영 등을 통해  
새로운 책 문화, 도서관 문화를 만들어가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.

(사)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

주소: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가길 8-7 2층

전화번호: 02)388-5933

메일: [kidlib@smalllib.org](mailto:kidlib@smalllib.org)

홈페이지: [www.smalllib.org](http://www.smalllib.org)